

■ ‘국제노인의료 심포지엄’ 주최 나카무라 테츠야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이사장

“부산 고령화 급속 진행, 노인의료산업계 관심 집중”

27일 부산 해운대 벅스코(BEXCO)에서는 ‘2013 국제노인의료 심포지엄’이 개막돼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 노멀시대, 노인의료를 새롭게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6개국에서 600여 명의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은 2011년부터 부산에서만 3회 연속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심포지엄 주최자인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2011년부터 부산서 3회 연속 개최 “만성기 질환자 퇴원 후에도 의료진 재택 진료 시스템 필요”

나카무라 테츠야 이사장은 27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빨라 노인 의료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장”이라며 3년 연속 부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이번까지 부산에 세 번 왔다”면서 “우수한 숙박·회의시설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한 회원들의 찬사가 이어져 앞으로도 부산에서 계속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고령화시대를 거친 일본의 경험을 공유해 노인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일본은 십수 년 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노인 의료와 복지에 관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노인의료 시스템에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개별 의료현장의 다양한 요구들이 수용되기보다 관료들의 편의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환자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경제적 환경과 개인적 욕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평균적인 서비스만 제공돼 현장 의료진과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의료 시스템에 대한 조연도 아끼지 않았다. 지역의 각급 의료기관들과 재택 의료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개업의사에서부터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연계된 포괄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재택 의료환경과의 연결고리도 만들어야 된다”면서 “만성기 질환을 가진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간호사나 의사가 왕진해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국제실버엑스포와 동시 개최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료기기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현재 개발되고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를 소개해 국제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사진=김병집 기자 bik@

「国際老人医療シンポジウム」主催：中村哲也アジア慢性期医療協会理事長

釜山・高齢化急速進行に伴い、老人医療産業界への関心が集中

7月27日、釜山・海雲台・ベクスコにて『2013 国際老人医療シンポジウム』が開幕し、3日間にわたり開催される。

今大会は【ニューノーマル時代、老人医療を新しくデザインする】というテーマのもと、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米国など6ヶ国から約600人の医療機関、及び関連専門家が参加している。なお、このシンポジウムは2011年から3年連続で釜山にて開催されており、その理由について、主催者であるアジア慢性期医療協会の中村哲也理事長は「釜山は高齢化に向かう速度がとても速く、老人医療産業従事者達の関心が集中している場所である」と、27日の本誌インタビューで説明している。

また、中村理事長は「今回で釜山を訪れたのは3度目である」としながら、「快適な宿泊や会場、美しい景観に対する会員達の賛辞があり、今後も釜山で継続的に行事を開催するだろう」と話した。

実は、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日本の関係者が大勢参加するなど、国内だけではなく、アジア主要国からも大きな注目をあびている。それは、アジア諸国で最初に高齢化時代を迎えた日本の経験を共有し、老人医療サービスの質の向上を試みることができる機会であるためだ。

中村理事長は「日本は十数年前から超高齢社会に突入し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しながら「老人医療と福祉に関して他のアジア諸国よりノウハウを多く蓄積しているのも事実だ」と明かした。

しかし、「日本の老人医療システムに欠点がないわけではない」とも指摘した。これは、其々の医療現場から求められる様々な要求が受容されるのではなく、官僚らの便宜中心に政策が推進され、患者の特性に合わせた差別化されたサービスを提供で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

中村理事長は「日本では、あらゆる生活レベルの人が、違った個人的要望をしても、同質のサービスしか受けられないため、現場の医療スタッフと患者の不満が大きくなっている」と語り「アジア諸国は日本の成功と失敗の事例から多くの事を得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話した。

また、中村理事長は韓国の老人医療システムに対する助言も惜しまなかった。それは、地域の各医療機関と在宅医療の連携が重要になるということだ。中村理事長は「開業医から総合病院に至るまで、地域内医療機関が連携した包括的サービスを開発するとともに、在宅医療との連携の輪も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慢性期疾患を持つ患者さまが病院で治療を受け、帰宅後も看護師や医師が往診し、持続的に支援できるシステムが必要だ」と忠告した。

また、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釜山国際シルバーエキスポ』と同時開催しており、医療現場の医療機器に対する需要を把握する一方、現在開発されている優秀な医療機器を紹介して国際的な販路拡大にも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る。